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중국의 무역영토 확장 전략 및 시사점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중국의 무역영토 확장 전략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중국의 무역영토 확장 전략의 특징 .....	3
(1) 아프리카 진출 .....	3
(2) 아시아 경제권 통합 .....	6
(3) 중남미 시장 개척 .....	9
3. 시사점 .....	12
【첨부】 지역별 개요 .....	14

< 요약 >

■ 개요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조달, 시장 개척 및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공격적인 무역영토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경제·사회적 특징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對아시아, 對중남미 무역영토 확장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국의 무역영토 확장 전략의 특징

(1) 아프리카 진출

**(정치·외교)** 중국은 1950년대부터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형성해왔으며, 최근에는 주기적인 방문외교를 통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중국 지도부의 아프리카 방문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ACFP)’을 창설해 3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공공인프라, 의료보건,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 규모는 2004년 81.4억 달러에서 2013년 644.0억 달러로 연평균 25.8% 증가하였으며, 공공인프라, 의료보건,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지역)**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 뒤쳐진 중국은 외교 경쟁이 약한 신흥자원부국을 위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나 외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신흥자원부국에 집중이 진출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정치·사회 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 사회 비난의 배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산업·기업)**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진출 시 현지 공장·인프라 건설 및 고용을 약속하는 패키지딜을 추진해 아프리카 정부의 호감을 사고 있다. 중국 은행들은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 시 공장 설립과 고용을 약속하고, 인프라 건설도 수행하고 있다.

(2) 아시아 경제권 통합

**(물류)** 중국은 아시아 경제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상 및 해상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내교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역내 물류 허브가 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인접국의 경제개발에 직·간접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 간 경제적·문화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역내 분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점차 가공무역 수입을 제한하며 자국내 산업구조 조정 및 신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주변국으로부터의 소비

재 수입을 장려하며 역내 분업구조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통상)** 중국은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며 역내 통상 주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CEP이 체결될 경우 동남아 주요국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투자 및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달리 인프라 투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금융부문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중남미 시장 개척

**(소비시장 겨냥)** 중남미 지역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자동차, 전기·전자, 유통 등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 소비재 수요가 둔화되고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선진국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남미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그린필드형 투자)** 중국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 투자 시 무역장벽 회피 및 북미 지역으로의 우회 수출을 목적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상당수 중국 기업들은 브라질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였거나 신규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류 부문 참여 확대)** 소비시장 접근, 자원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물류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부문 진출(건설 및 운영)이 활발하며, 중국 정부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리스크 관리 강화)**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책임 확대, 기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CSR활동 보고서 발간, 다언어 서비스 지원 사이트 개설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를 집중하거나, 투자계약에 안정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 시사점

첫째, 신흥 경제권역별로 중국의 진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흥국과의 정치, 외교적 협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 → 경제기반 조성 → 협력적 교역관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가 간 금융, 통상, 물류 장벽을 낮추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남미 지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 급증, 에너지·물류 인프라 확충에 대응하여 수출 및 투자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중국은 세계 전역에서 공격적인 무역영토 확장 전략<sup>1)</sup>을 추진

- 중국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조달, 시장 개척 및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무역영토 확장에 주력

· 자원 조달: 2000년 이후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 (화석연료를 포함) 수요가 증가

\* 중국의 석유 수요: 1990년 232.0만b/d → 2013년 1,075.6만b/d (CAGR 6.9%)

· 시장 개척: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신흥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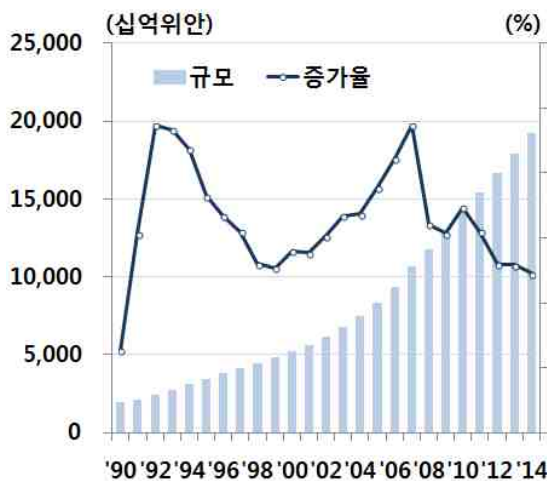
· 국제 위상 강화: 경제 규모에 비해 미흡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

- 중국의 대외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 중국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05년 1조 4,219억 달러에서 2013년 4조 1,590억 달러로 연평균 1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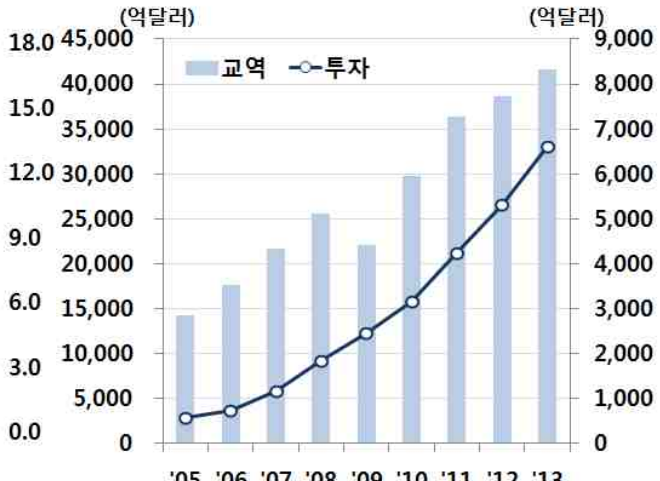
· 중국의 대외 누적 투자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572억 달러에서 2013년 6,605억 달러로 10배 이상 확대

< 중국 GDP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자료 : IMF.  
주 : GDP규모 및 증가율은 실질 기준.

< 중국의 대외 무역 및 투자 규모 추이 >



자료 : 중국 통계연보.

1) 중국의 '무역영토 확장 전략'은 세계 주요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포함해 자원 확보, 상호간 경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자국 이익 극대화 전략을 지칭.

- 특히,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
  -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을2) 집중적으로 공략
    - 아프리카: 중국은 2000년대부터 對아프리카 자원수입 및 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공격적 진출을 가속화
    - 아시아: 중국과 경제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 아시아 인접국과의 협력 강화 전략은 중국의 이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남미: 중국은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 규모와 청년층 위주의 인구구조로 미래 유망 소비시장으로 꼽히는 중남미에 주목
  - 각 지역별로 경제·사회적 특징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
    - 아프리카: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한 주기적인 방문외교와 대규모 경제 협력 전개
    - 아시아: 아시아 경제권 통합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통상·금융 부문에서의 역내 파트너십 강화 등
    - 중남미: 주로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와 물류 부문 참여 확대를 추진
  -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對아시아, 對중남미 무역영토 확장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주요 대상 및 전략 >

	경제규모('14) (세계 비중)	중국 누적투자액('13) (중국 전체 해외투자 대비 비중)	중국의 지역별 전략	
			방향성	주요 내용
아프리카	2조 4,738 억달러 (3.2%)	262억달러 (4.0%)	미래 시장 개척	-주기적인 방문외교 전개 -대규모 경제 협력 추진 -신흥자원부국 집중 공략 -현지 개발을 동반한 패키지딜
아시아	22조 2,131 억달러 (28.6%)	4,474억달러 (67.7%)	아시아 경제권 통합	-역내 물류네트워크 구축 -통상·금융 부문의 역내 파트너십 강화
남미	5조 8,004 억달러 (7.5%)	861억달러 (13.0%)	소비시장 집중 공략	-그린필드형 투자 전개 -물류 부문 참여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자료 : IMF, 중국통계연보, 현대경제연구원.

2)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 참조.

## 2. 중국의 무역영토 확장 전략의 특징

### (1) 아프리카 진출

#### ○ 현황

- (교역) 중국과 아프리카의 총 교역규모는 2013년 2,103억 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4.4%를 차지

- 아프리카의 對 중국 수출은 2004년 156억 달러에서 2013년 1,175억 달러(연평균 25.1%), 수입은 138억 달러에서 928억 달러(연평균 23.6%) 증가
- 이에 따라 중국-아프리카 총 교역 규모는 2004년 294억 달러에서 2013년 2,103억 달러로 연평균 24.4% 증가

\* 아프리카 전체 교역 중 중국 비중: 5.2%('04) → 14.4%('13)

-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는 남아공,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 (투자) 2013년 누적액 기준 중국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261.9억 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FDI의 3.8%를 차지

- 중국의 對 아프리카 누적 투자 규모는 2004년 9.0억 달러에서 2013년 261.9억 달러로 연평균 45.4% 확대

\* 아프리카 전체 FDI 중 중국 비중: 0.4%('04) → 3.8%('13)

- 중국의 對아프리카 업종별 투자 비중은 광산(30.6%), 금융(19.5%), 건축(16.4%), 제조(15.3%) 순(2011년 누적액 기준)

< 중국-아프리카 무역 규모 추이 >



자료 : 중국통계연감(China Statistical Yearbook).  
주 : 수출과 수입은 아프리카의 對중국 교역 기준.

< 중국의 對 아프리카 투자 추이 >



자료 : 중국통계연감, UNCTAD.  
주 : 1) 누적투자(stock) 기준.  
2) 비중은 아프리카 전체 FDI 중 중국 비중.



○ 특징

- (정치·외교)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방문외교를 통한 공세 지속
  - 중국은 1950년대부터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를 표방,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우호관계를 형성
  -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거의 매년 중국 지도부의 아프리카 방문이 지속
  - 또한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ACF, China and Africa Cooperation Forum)을 창설해 3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sup>3)</sup>
- (경제협력)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와 공공인프라, 의료보건,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 규모는 2004년 81.4억 달러에서 2013년 644.0억 달러로 연평균 25.8% 증가
  - 주요 협력 분야로는 공공인프라, 의료보건, 과학기술 등
    - \* 인프라: Boali 3호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앙골라 동서횡단 철도 보수 등
    - \* 의료보건: 2010~2012년 기간 가나, 짐바브웨 등에 27곳의 병원을 건립
    - \* 과학기술: 2009년부터 튀지니, 에티오피아 등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 2000년대 중국 지도부의 아프리카 방문 > <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

연도	방문국
2000	-국가주석: 이집트·남아공 방문(4월)
2002	-총리: 알제리 등 6개국(4월, 8월) -국가주석: 리비아 등 3개국(4월)
2003	-총리: 이집트(11월)
2004	-국가주석: 레소토 등 4개국(2월)
2006	-국가주석: 나이지리아 등 3개국(4월) -총리: 우간다 등 7개국(6월)
2007	-국가주석: 카메룬 등 8개국(1월)
2009	-총리: 탄자니아 등 6개국(11월)
2010	-총리: 이집트(8월)
2013	-국가주석: 탄자니아 등 3개국(3월)
2014	-총리: 에티오피아 등 4개국(5월)



자료 : 중국통계연감(China Statistical Yearbook).  
 주 : 비중은 중국의 전체 해외 경제협력 중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

3) 부채 면제, 인력개발·교육, 투자, 원포 프로그램 확대 등.

- (지역)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진출이 뒤처진 중국은 외교 경쟁이 약한 신흥자원부국을 위주로 진출을 추진
  -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경제교류에 있어 서구국가와 비교해 후발주자의 위치
  - 때문에 수단, 콩고민주공화국(DRC), 앙골라, 짐바브웨 등 불안정한 국가나 외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신흥자원부국에 집중 진출
  - \* 2013년 기준 국가별 경제협력 규모(전체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 대비 비중): 앙골라(15.6%), 나이지리아(8.9%), 수단(4.1%), 짐바브웨(2.1%) 콩고민주공화국(2.0%) 등
  - 다만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정치·사회 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제 사회 비난의 배경으로도 작용
  
- (산업·기업) 한편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진출 시 현지 공장·인프라 건설 및 고용을 약속하는 패키지딜을 추진해 아프리카 정부의 호감을 사고 있음
  - 중국 수출입은행은 전체 차관의 40%를 아프리카에 할당하는 등, 중국 정책은행들은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
  -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 시 공장 설립과 고용을 약속하고, 인프라 건설도 수행
  - 이는 아프리카 정부 입장에서 주로 아프리카의 자원 채굴에만 전념하는 서구 기업들과 비교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

< 중국의 주요 아프리카 협력국 >

국가	부패지수 (총 175국)	평화지수 (총 162국)	중국과의 경협 규모
앙골라	161위	102위	74.5억달러 (15.6%)
나이지리아	136위	151위	42.7억달러 (8.9%)
수단	173위	157위	19.8억달러 (4.1%)
짐바브웨	156위	148위	9.9억달러 (2.1%)
콩고 (DRC)	154위	155위	9.4억달러 (2.0%)

<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사례 >

기업	주요 내용
화젠그룹	- (에티오피아) 신발공장에 향후 10년간 20억 달러 투자 계획(2012년 기준)
포톤자동차	- (케냐 나이로비) 5,000만달러 규모의 공장 완공(2012년)
중국철도건설 길리	- (나이지리아) 서부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수주(2012년)
자동차	- (케냐) 자동차 공장 설립 - (이집트) 자동차 조립 공정 수행
화웨이	- (아프리카 7개국) 150달러의 초저가 스마트폰 출시 - (남아공) 여객철기업 프라사의 철도통신 사업자 선정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Vision of Humanity, 중국통계연감.

주 : 괄호안은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규모 대비 비중(2013년 기준).

(2) 아시아 경제권 통합

○ 현황

- (교역) 중국의 對아시아 교역 규모는 2004년 6,649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2,240억 달러로 연평균 14.4% 증가

- 아시아의 對 중국 수출은 2004년 3,694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899억 달러(연평균 12.8%), 수입은 2,955억 달러에서 1조 1,341억 달러(연평균 16.1%) 증가
- 이에 따라 중국-아시아 총 교역 규모는 2004년 6,649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2,240억 달러로 연평균 14.4% 증가
- \* 아시아 전체 교역 중 중국 비중: 19.1%('04) → 29.5%('13)
- 아시아 내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투자) 2013년 누적액 기준 중국의 對아시아 투자는 4,474억 달러로 아시아 전체 FDI의 20.1%를 차지

- 중국의 對아시아 투자 규모는 2005년 406억 달러에서 2013년 4,474억 달러로 연평균 35.0% 증가 (누적액 기준)
- \* 아시아 전체 FDI 중 중국 비중: 5.6%('04) → 20.1%('13)
- 중국의 對아시아 투자를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44.3%), 광물자원(25.4%), 부동산(15.9%), 운수(7.8%) 분야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중국-아시아 무역 규모 추이 >



자료 : 중국통계연감(China Statistical Yearbook).  
주 : 수출과 수입은 아시아의 對중국 교역 기준.

< 중국의 對 아시아 투자 추이 >



자료 : 중국통계연감, UNCTAD.  
주 : 1) 누적투자(stock) 기준.  
2) 비중은 아시아 전체 FDI 중 중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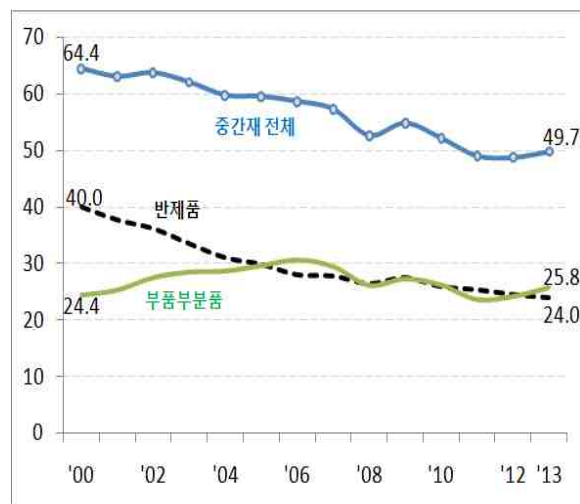
○ 특징

- (물류) 중국은 아시아 경제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상 및 해상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내교역 확대를 도모
  -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함께 이르는 개념
  - 시진핑 정부는 주변 2~30개국과 고속철 협력을 논의하는 등, 아시아 내 육상 및 해상 운송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외교·경제력을 집중
  - 이는 중국이 역내 물류 허브가 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인접국의 경제개발에 직·간접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대내적으로는 지역 간 경제적·문화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 (산업)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역내 분업구조 재편을 추진
  - 중국은 1999년부터 점차 가공무역 수입을 제한하며 자국내 산업구조 조정 및 신산업육성을 추진 중
  - \*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제한 품목 수: '04년 341개 → '14년 1,871개(자료: 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
  - 반면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주변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을 장려하며 역내 분업구조 재편을 도모

< 중국-아시아 주요 물류협력 사례 >

일시	내용
2013. 7	중국 허난성 정저우 - 독일 함부르크 국제화물열차 시범운행
2013. 2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추가 투자유치 추진
2013. 11	중국 광둥성 동관 -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화물철도 개통
2014. 2	예멘 아덴항 및 모카항 확장 컨테이너 부두 확장 차관 제공 합의
2014. 2	중국 -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新실크로드 구상과 연개방안 논의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



자료 : UN Comtrade.

- (통상) 중국은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며 역내 통상 주도권 강화를 위해 노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sup>4)</su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중국은 2015년 연내 RCEP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를 비롯해 경쟁,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
  - RCEP이 체결될 경우 동남아 주요국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투자 및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
  - 중국은 RCEP을 통해 미국주도의 아시아 전략인 TPP에 맞서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경제통합 주도권을 행사
  
- (금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한 국제 금융질서의 주도권 강화
  -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설립이 가시화되면서<sup>5)</sup>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
  -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달리 인프라 투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현실화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

< 중국의 對아시아 국가 FTA 추진 현황 >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기체결 (7건)	홍콩, 마카오, ASEAN,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타결 (2건)	한국('15.2 가서명), 호주('14.11 협상타결선언)
협상 중 (2건)	RCEP('15.2 제7차 협상), 한·중·일('14.11 제6차 협상)
공동연구 (1건)	인도('07.10 공동연구 완료)

< AIIB와 ADB 비교 >

국가	AIIB	ADB
설립 목적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아시아 지역의 빈곤 해소 및 역내 투자 촉진, 기술원조공여 등
회원국	57개국	67개국
자본금	500억달러 (1,000억달러로 확대 예정)	1,628억달러
지분율	중국(33%), 인도(6.8%), 호주(5.6%), 독일(4.7%) 예상	일본(15.7%), 미국(15.6%) 등

4)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5) 2015년 4월 15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7개국이 AIIB 창립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29개국), 중동(7개국), 유럽(18개국), 남미와 아프리카(3개국) 으로 회원국이 구성.

(3) 중남미 시장 개척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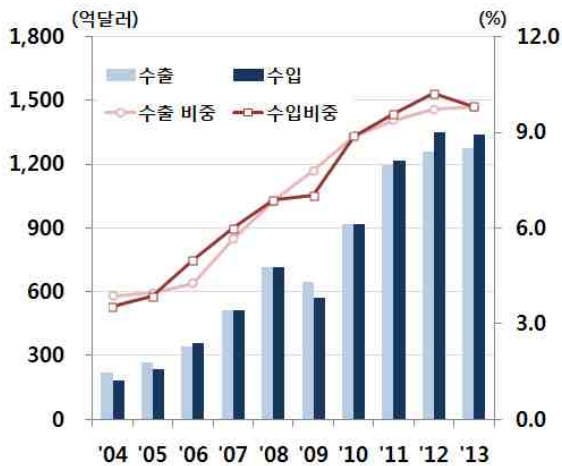
- (교역) 중국-중남미 총 교역규모는 2013년 2,614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교역의 14.4%를 차지

- 중남미의 對 중국 수출은 2004년 218억 달러에서 2013년 1,274억 달러(연평균 21.7%), 수출은 182억 달러에서 1,340억 달러로(연평균 24.8%) 증가
- 이에 따라 중국-중남미 총 교역 규모는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13년 2,614억 달러로 연평균 23.2% 증가
- \* 중남미 전체 교역 중 중국 비중: 3.7%('04) → 9.8%('13)
- 주요 교역 대상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등

- (투자) 2013년 중남미 전체 FDI 중 중국의 비중은 3.4% 정도이며, 주로 에너지, 금속 등 자원개발 투자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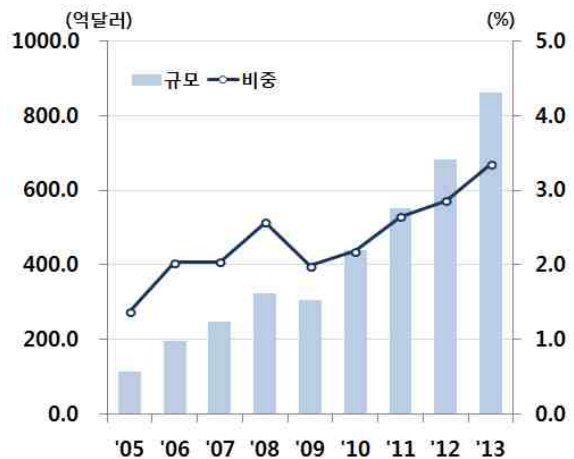
-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는 2013년 861.0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FDI의 3.4%를 차지(누적액 기준)
- \* 중남미 전체 FDI 중 중국 비중: 1.4%('04) → 3.4%('13)
-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는 에너지 부문에 절반 이상(52%)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속(23%), 운송(14%), 농업(4%) 순

< 중국-중남미 무역 규모 추이 >



자료 : 중국통계연감(China Statistical Yearbook).  
주 : 수출과 수입은 중남미의 對중국 교역 기준.

< 중국의 對 중남미 투자 추이 >



자료 : 중국통계연감, UNCTAD.  
주 : 1) 누적투자(stock) 기준.  
2) 비중은 중남미 전체 FDI 중 중국 비중.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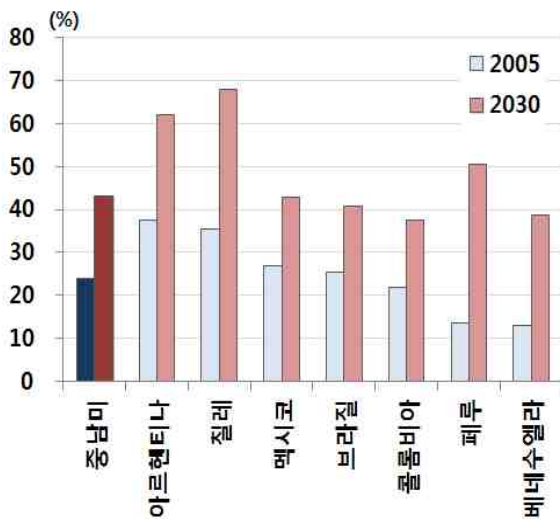
- (소비시장 겨냥) 중국은 중남미 지역의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

- 중남미 지역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자동차, 전기·전자, 유통 등 소비시장이 부상
- \* 2005-2030년 중산층 비중 변화 전망: 중남미 전체(24%→43%), 칠레(36%→68%), 페루(14%→51%) 등
- 한편 중국 기업들은 ①중국 내 소비재 수요 둔화, ②소비시장으로서의 중남미 지역의 부상 ③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선진국 진출 어려움 등에 따라 중남미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

- (그린필드형 투자) 제조업 투자의 경우 중남미 지역의 무역장벽 회피 및 북미 우회 수출을 목적으로 그린필드형 진출 방식을 활용

- 중국 기업들은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 투자 시 무역장벽 회피 및 북미지역으로의 우회 수출을 목적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를 선호
- Chery, Gree, Lenovo 등 상당수 중국 기업들은 브라질 등지에 공장을 설립 하였거나 신규 투자를 고려 중

< 중남미 중산층 비중 전망 >



자료 : WorldBank.

< 중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현황 >

기업명	내용
Chery	-2013년부터 중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초로 브라질 현지 생산을 개시(연간 17만대 생산)
Gree	-1998년 브라질 진출, 현재 브라질 최대 에어컨 생산업체
드래곤 마트	-중국 정부와 멕시코 기업인 Chenkai Investment Company Chinamex Middle East Investment가 공동 추진하는 복합물류·쇼핑센터 건설 프로젝트
Lenovo	-2008년 멕시코에 생산 공장 건설 -전체 생산의 75%를 미국으로, 그 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국가로 수출

- (물류 부문 참여 확대) 소비시장 접근, 자원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부문 진출 활발
  - 중남미 지역의 물류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자원·상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
  - \* 중남미 주요국의 물류인프라(Infrastructure) 경쟁력(WorldBank): 칠레(3.17점/5점 만점, 41위/160개국), 멕시코(3.04점, 50위), 파나마(3.00점, 52위), 아르헨티나(2.83점, 63위), 브라질(2.93점, 54위), 콜롬비아(2.44점, 98위) 등
  -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부문 진출(건설 및 운영)이 활발하며, 중국 정부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음
  
- (리스크 관리 강화)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책임 확대, 기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①노동분쟁 ②원주민과의 대립 ③무장반군 ④부정적 여론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 고조
  - 이에 중국 기업들은 CSR활동 보고서 발간(페트로차이나), 다언어 서비스 지원 사이트 개설을 통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교류 편의성 제고(ZTE)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중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를 집중하거나, 투자계약에 안정화 조항<sup>6)</sup>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 중국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부문 참여 >

기업명	내용
Tongling Nonferrous Metals Group 외	-(에콰도르) 동광 수송을 위해 광물 하역시설을 건설
Hebei Wenfeng Industrial Group	-(칠레) 광물 수출을 위해 터미널 건설
China Harbor Engineering Company	-(자메이카) 중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자메이카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의 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젝트 실시
Hutchison Whampoa Limited	-(아르헨티나, 멕시코, 바하마 등) 6개 터미널 운영

< 중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활동 >

기업명	내용
페트로차이나	-2013년 「남미에서의 페트로차이나」 보고서: 건강, 안전, 환경보호 부문의 CSR 활동 소개
ZTE	-다언어 서비스 지원 사이트 개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교류 편의성을 제고
기타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중남미 33개국 중 11개국)에 투자 집중 -투자계약에 안정화 조항(재산권, 조세, 수출입 규정 등) 추가 -필요시 제 3의 장소에서의 중재조항 포함

6) 재산권, 조세, 수출입규정 등.



### 3. 시사점

- 중국의 공격적 무역영토 확장이 한국의 신흥시장 진출에 미치는 위협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첫째, 신흥 경제권역별로 중국의 진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검
  - 아프리카의 자원·인프라 개발, 아시아의 제조산업 부흥, 중남미 소비시장의 부상 등 신흥국의 성장 잠재력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의 신흥국 내 경쟁이 격화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등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흥국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
  - 초기 진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경제개발 및 고용을 증진시키는 윈-윈 방식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국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둘째, 신흥국과의 정치, 외교적 협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
  - 신흥국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진출 장벽 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정부-기업간 협력이 필수적
  - 한편 신흥 지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출 대상국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흥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 셋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 → 경제기반 조성 → 협력적 교역관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출전략 수립 및 시행
  - 아프리카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최후의 미개척시장(last frontier)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후 중국과 일본의 진출 경쟁이 치열
  -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적 경제협력체계 구축의 토대를 강화
  - 정부가 무상원조 또는 무이자차관을 제공하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이 수주, 건설하는 패키지형 개발원조 프로젝트 기획

-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인적원조(직업훈련, 경제·산업 전문가 파견)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 관계 구축
- 넷째,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가 간 금융, 통상, 물류 장벽을 낮추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아시아 경제통합 협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도권을 강화
  - 아시아 주요국의 항만 건설 및 운영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인도양-아라비아해에 걸친 국적선의 기점 확대를 추진
  - 남북 철도 연결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대륙과의 육상물류가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여 동아시아 물류허브국으로 도약을 준비
- 다섯째, 중남미 지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 급증, 에너지·물류 인프라 확충에 대응하여 수출 및 투자진출 지원을 확대
  - 중남미 경제권은 넓은 국토, 풍부한 자원과 함께 높은 제조업 경쟁력, 개방적 경제체제를 겸비한 고속성장 유망 지역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및 태평양동맹(PA) 소속국 및 읍저버 국가들과 경제·산업·자원 협력을 위한 양자 및 다자협약체 운영 확대
  -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몰, 대형 쇼핑몰 등을 겨냥하여 소비재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
  - 정부 주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 민간 주도의 배전 시장, 육운 및 수운 항만 등 인프라 관련 투자정보 수집에 주력 **HRI**

산업전략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

전해영 선임연구원 (2072-6241, hjeon@hri.co.kr)

【첨부】 지역별 개요

① 아프리카

- 아프리카는 53개국으로 구성된 대륙으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
  - 아프리카의 면적은 3,022만km<sup>2</sup>로 세계 6대륙 중 2번째로 넓으며, 열대·아열대·건조 지역이 넓게 분포
  - 경제규모: 국내총생산(GDP)은 2조 4,738억 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며, 1인당 GDP는 2,223달러로 세계 1인당 GDP대비 20.4% 수준(2014년 기준)
  - 주요 산업: 농업이 16%, 광업을 포함한 산업이 33%, 서비스업이 51% 수준
- 수십년간의 서구 강대국 지배로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치·경제 발전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시현
  - 아프리카 대륙은 1970년대 들어 서구 강대국들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후에도 정치·종교·영토 분쟁에 시달리며 1990년대까지 정치·경제 측면에서 성장이 정체
  - 1990년 중반부터 민주화와 정치발전,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이후 평균 5%대의 성장률을 지속
- 대규모 인구나 자원으로 마지막 남은 미개발 신시장으로서의 가능성 풍부
  - 2014년 아프리카 인구는 11.1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15.7%를 차지
  - 원유,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 높음

< 아프리카 개요 >

면적	3,022만 km <sup>2</sup> (남한의 303배)
주요 국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53개국
인구	11.1억명 (세계 인구의 15.7%)
종교	이슬람교, 기독교, 토착종교
산업	농업(16%), 산업(33%), 서비스업(51%)
언어	영어, 불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크레올어 외 기타 언어
GDP	2조 4,738억달러 (세계 GDP의 3.2%)
1인당GDP	2,223달러 (세계 1인당 GDP대비 20.4% 수준)
경제성장	명목 GDP 성장률 4.5% ('14년)

자료 : IMF, CIA, KOTRA.  
주 : 2014년 기준. 단 산업은 최근연도 기준.

< 아프리카 주요 자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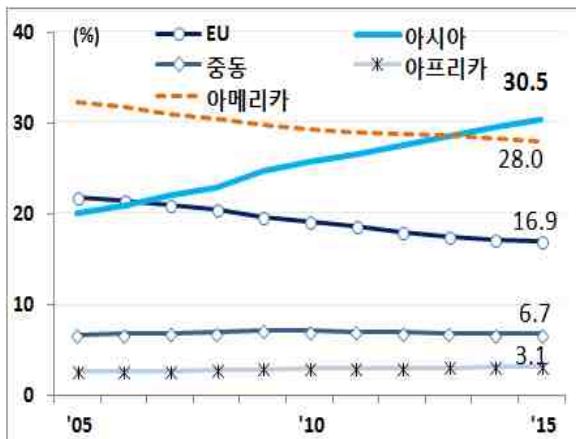
국가	부존 자원
콩고민주공화국	원유: 26억 배럴 코발트: 200만t(1위) 아연: 500만t(1위) 구리: 500만t 우라늄: 1800tU
잠비아	구리: 1900만t(9위) 코발트: 27만t 철광석: 1억 2,500만t
마다가스카르	니켈: 195만t(8위) 코발트: 12만5,000t(8위) 크롬: 100만t(9위)
모잠비크	석탄: 24억t
남아프리카공화국	석탄: 487억 5,000만t(5위) 우라늄: 34만1,000tU(5위) 철광석: 6억 5,000만t(위) 니켈: 370만t(7위) 크롬: 1,000만t(2위)
나이지리아	원유: 246억 배럴

자료 : KOTRA, 광물자원공사.  
주 : 괄호안은 세계 순위.

②아시아

- 아시아는 45개국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대륙으로, 세계 인구의 59.5%, 세계 경제의 30.5%를 차지
  - 아시아는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민족구성과 종교를 지닌 45개국으로<sup>7)</sup> 구성되며, 특히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세계 인구의 60% 가량을 차지
  -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0% 정도였으나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현재 30% 정도를 차지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은 지난 10년간 타 경제권과 비교할 때 월등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 아시아 경제는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세계경제 성장률(3.8%)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아시아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륙으로 부상
  - 특히 중국,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은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 경제 발전을 주도

<전 세계 GDP의 지역별 비중 추이>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IMF.  
 주 : 1) PPP 기준.  
 2) 2015년은 전망치.

자료 : IMF.  
 주 : 기간별 단순 평균이며, 아세안은 회원국 10개국의 단순평균임.

7) 아시아 대륙에 속해있으나 인종문화 측면에서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 터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제외.

③ 중남미

- 32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는 세계 경제의 7.5%, 인구의 8.5%를 차지
  - 캐나다와 미국 이남에 위치한 중남미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하며 면적은 2,053만km<sup>2</sup>로 세계 6대륙 중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으로 큰 규모
  - 경제규모: 국내총생산(GDP)은 5조 8,004억 달러로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며, 1인당 GDP는 9,620달러로 세계 1인당 GDP대비 88.4% 수준(2014년 기준)
  - 산업 구성: 농업이 5%, 광업을 포함한 산업이 32%, 서비스업이 63%
  - 리튬·구리 매장량은 세계 생산량의 40%에 달하며, 원유 등 천연자원도 풍부
  
-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 규모와 청년층 위주의 인구구조로 미래 유망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05년 중남미의 중산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24% 정도이며, 칠레, 페루 등 신흥국 성장으로 2030년까지 43%로 확대될 전망
  - 또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구성된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기대

< 중남미 위치 >



< 중남미 개요 >

면적	2,053만 km <sup>2</sup> (남한의 303배)
주요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등 32개국
인구	6.0억명 (세계 인구의 8.5%)
종교	카톨릭교
산업	농업(5%), 산업(32%), 서비스업(63%)
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GDP	5조 8,004억달러 (세계 GDP의 7.5%)
1인당GDP	9,620달러 (세계 1인당 GDP대비 88.4% 수준)
경제성장	명목 GDP 성장률 2.7% ('14년)

자료 : IMF, CIA, KOTRA.  
 주 : 2014년 기준. 단 산업은 최근연도 기준.